

시총 4.5조弗 첫 돌파… 엔비디아 ‘AI 거품론’ 불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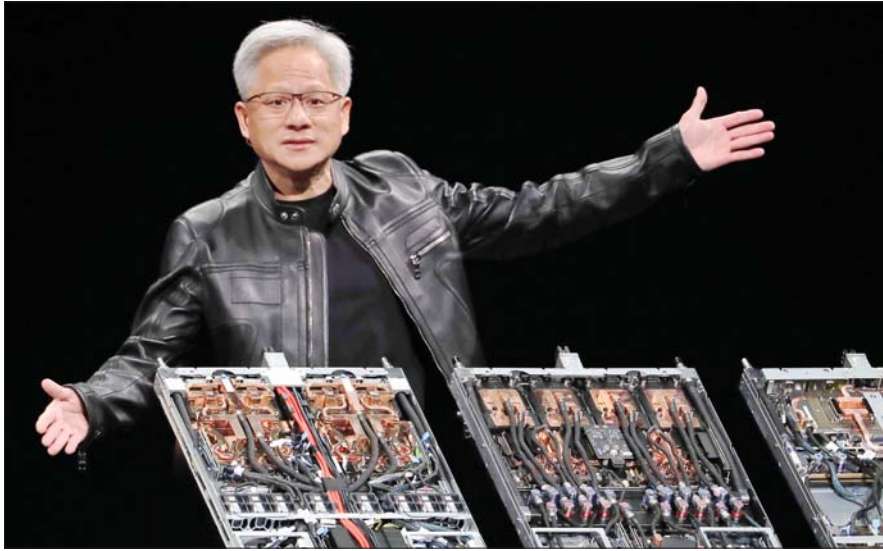
주가 전달비 2.6% 상승 186.58弗
올해들어 주가 39%↑ 상승세 유지

코어위브-메타 계약 등 영향받아
시티은행, 목표주가 210弗로 상향

미국의 AI(인공지능)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30일(현지 시각) 미 증시에서 시가총액 4조5000억달러(약 6300조원)를 넘겼다. 전 세계 기업 중 처음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AI 시대를 대표하는 엔비디아가 월가의 ‘넵사벽’ (넵기 어려운 사차원의 벽) 주인공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그동안 닷컴 시대를 이끌어 온 빅테크보다 엔비디아가 먼저 시총 4조달러(7월 9일)를 넘는데 이어 이날 4조5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을 두고 세계 산업·경제 패러다임이 AI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엔비디아 주가는 30일(현지시간) 전날 대비 2.6% 상승한 186.58달러로 마감했다. 종가를 반영한 시가총액은 4조5420억달러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6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5월 19일(현지 시간) 대만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컴퓨텍스 2025’ 개막을 앞두고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오른 뒤에도 올해에만 주가가 39% 오르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2023년 5월 시총 1조달러를 돌파한 뒤 2024년 2월 2조달러, 같은 해 6월 3조달러에 이어 지난 7월 4조달러에, 이날 4조5000억달러까지 돌파했다.

상승세의 직접적 촉매는 엔비디아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미국 AI 테이

터센터 기업 코어위브(CoreWeave)의 대규모 계약 소식이었다. 코어위브는 메타플랫폼(메타)과 최대 142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2031년 말까지이며, 추가 옵션을 활용할 경우 203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GB300’ 서버랙을 메

타에 공급하게 된다.

코어위브는 불과 일주일 전에도 오픈 AI와 최대 65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용량 계약을 추가 체결해 총계약 규모를 224억달러까지 확대했다. 기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고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메타·오픈AI 등 AI 경쟁 최전선 기업들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면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는 한층 견고해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흐름을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2단계 신호로 해석한다. 초기 모델 개발 단계에서 GPU 수요가 급증한 데 이어, 이제는 각사 데이터센터 확충과 모델 상용화 확대에 이어지면서 장기적 수요 기반이 더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씨티그룹은 2025~2029년 AI 설비투자(CapEx)가 2조8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엔비디아의 파죽지세가 ‘AI 거품론’도 불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비디아는 AI 기업들에 투자한 뒤 자신들

의 집을 사도록 하는 ‘순환 거래’를 유도해 시장 규모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GPU 수요가 공급을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주가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이다.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 아티프 말릭은 “엔비디아는 매우 매력적인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 수와 컴퓨팅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10달러로 상향했다.

한국투자자들의 엔비디아 관련 투자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보관금액은 159억1023만달러(약 21조9000억원)였다. 한 달 전보다 5.4%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엔비디아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GraniteShares 2.0x Long NVDA Daily ETF’ 보유액이 같은 기간 5억2542만달러에서 5억7724만달러로 14.9% 증가했다. 이 두 종목을 합치면 한국의 엔비디아 관련 투자금액은 164억8748만달러(약 22조7000억원)로 8월 말 대비 9억달러 이상 확대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서학개미, 비트마인 1억弗 어치 ‘집중매수’ “투자자 보호, 사전예방적 감사 필요”

해외주식 Click

지난주 가상자산 중심 투자 쏠림
비트마인 주간 매수액 3위→1위
매수 2위 이더리움 레버리지 ETF

가상자산 테마주가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지난주(9월 20~26일) 미국 주식 시장에서 집중매수한 종목은 가상자산 채굴기업 비트마인(BitMine Immersion Technologies)이었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세이브로 자료에 따르면, 9월 초까지는 오라클과 숏 ETF 등에 자금이 몰렸지만 지난주에는 가상자산 중심의 투자 쏠림이 뚜렷해졌다. 비트마인은 전주 3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아이리스에너지도 전주 대비 순매수액이 크게 늘면서 흐름의 변화를 상징하는 종목이 됐다.

이 기간 비트마인 순매수액은 약 1억263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9월 13~19일) 순매수액 8091만 달러 대비



ChatGPT로 생성한 ‘비트코인 보유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약 27%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비트마인은 본래 비트코인 채굴 사업 중심이었지만, 최근 이더리움을 집중매입하면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비트마인이 보유한 이더리움 규모가 수백만 개에 달하고 암호화폐·현금 자산 총액도 100억 달러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재무 구조 변화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선 가상자산 ETF가 불허돼 투자자들이 대신 미국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주 순매수 2위는 Volatility Shares 2× Ether ETF(이더리움 레버리지 ETF)로 약 9736만 달러 순매수됐고, 3위에는 아이리스에너지(Iris Energy)가 약 9236만 달러로 이름을 올렸다. 아이리스에너지도 가상자산 채굴 외에 데이터를 활용한 AI 클라우드 인프라 쪽으로 사업 확장을 발표해 시장의 이목을 끈 기업 중 하나다.

아울러 기술대형주들도 여전히 투자자들의 순매수 순위 상단에 올랐다. 엔비디아는 약 8475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8148만 달러의 순매수 흐름을 이어갔다. 또한 QQQ ETF(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도 약 5492만 달러의 순매수로 기술주 전체에 대한 노출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시장 테마 전환의 신호로 읽힌다. 다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레버리지 ETF 구조의 복리 효과와 경로 의존성,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규제 리스크 등이 투자자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증권사 감사 워크숍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감사조직에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사후 적발과 징계에 머물렀던 감사 기능을 선제적 내부통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증권사 감사 및 감사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증권사 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국 주요 간부,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감사들이 참석해 최근 감사·제재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감독·검사에 있어 최우선의 목표이자 과제는 투자자 보호”라며 “향후 감독·검사 운영 방식도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 감사조직도 사후 적발·징계 중심의

기존 시각에서 과감히 탈피해 사전예방적 감사를 대폭 강화해 달라”며 “특히 내부통제의 총책임자인 대표이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 부원장보는 “투자자 피해를 외면하는 ‘봐주기식’ 감사가 적발되면 엄정히 검사·제재하겠다”며 “반대로 자체감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 모범 사례는 검사·제제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다수의 투자자 권의 침해 사건이 일부 직원의 일탈뿐 아니라 사전적 내부통제 미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조직이 상품설계·판매·운용 전 과정에서 ‘와치독(감시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참석자들도 “내부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허정윤 기자

명인제약, 코스피 첫날 12만1900원 ‘파블’

공모가 5만8000원 대비 110% 급등

명인제약이 기업공개(IPO) 첫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파블(공모가 두 배)’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새롭게 개편된 공모주 제도 이후 첫 코스피 상장 종목이라는 상징성에도 제한된 유통 물량이 상승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공모가(5만8000원) 대비 110.1% 오

른 12만190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공모가 대비 106.55% 급등한 11만98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한때 12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명인제약은 국내의 기관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최상단인 5만8000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전체 기관 배정 물량 중 89% 이상이 의무보유확약으로 묶이면서 실질 유통 가능 물량이 약 11% 수준에 불과했다. 이같은 ‘품절주’ 성격이 초반 주

가 랠리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일반 청약에서도 587대1 경쟁률과 17조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리며 흥행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명인제약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희망 범위(4만5000원~5만8000원) 최상단인 5만8000원으로 확정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경쟁률 587.0대 1을 기록하며 증거금 약 17조3634억원을 모았다.

회사 측은 공모 자금을 중추신경계(CNS) 신약 ‘에베나마이드’ 연구개발과 팔탄1공장·팔탄2공장 설비 확충에 투입한다. /허정윤 기자

‘ACE ETF’ 100개 종목 순자산 20조 돌파

한투운용, 9개월 새 58% 급증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상장지수펀드(ETF)’ 시리즈 100개 종목의 합산 순자산액이 20조276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연초 13조원대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9개월 사이에 58% 가까이 증가했다.

순자산 급성장의 대표적 주역으로 ACE KRX금현물 ETF를 꼽았다.

이 상품은 지난 2021년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금현물형 ETF로 올해 들어 순자산액이 1조5519억

원 증가해, ACE ETF 중 가장 큰 순자산액 증가 폭을 보였다. 전날 기준 순자산액은 2조1747억원이다.

미국 기술주 투자 상품도 순자산 성장에 크게 기여한 걸로 보인다.

관련 ACE ETF 라인업 16개 상품의 합산 순자산액은 5조4928억원으로 올해 들어 38.5%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ACE 미국나스닥100 ETF(7062억원)와 ACE 테슬라배럴체인 액티브 ETF(3924억원) 등의 순자산 증가 폭이 특히 컸다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전했다. /허정윤 기자